
「New Normal 시대의 여성 리더십」 공모전 작성 양식

제 목	New Normal 시대의 여성 리더십
-----	-----------------------

[작성서식] 글씨체 : 휴먼명조 / 글씨크기 : 12포인트 / 분량 : 단면 5페이지 내외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New Normal 시대를 맞이했다. 실제 New Normal이라는 용어는 경제학 용어로 시작되었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이르는 말로 더욱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현시대 자체를 부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사람들은 Post Covid-19가 될 것 인가, With Covid-19가 될 것인가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큰 변화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또한 어느 시대에도 경험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문제이니만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New Normal의 한 부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작은 곳부터 큰 곳까지 안 미친 곳이 없지만, 그 중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다뤄보고자 한다. 필자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으로서 겪은 코로나19의 모습은 단면적 일수 밖에 없지만, 분명 있었던 사실들에 기반한 모습이기도 하다. 또한 글에 쓰고자 하는 여성 리더십은 性에 국한된 리더십을 설명하기 보다, 과거 상하관계가 분명했던 당시의 남성적 리더십에 반대되는, 새로운 리더십을 설명하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2020학년도 학년 부장을 열떨결에 맡게 되면서, 1학년 교사 9명의 대표, 그리고 1학년 학생 30명의 담임교사가 되었다. 예년과 같은 1년이었던다면 나의 첫 부장교사 경험은 어쩌면 평이하게, ‘할 만한’ 경험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1년은 결코 평이하지 않았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 되었다. 매번 바뀌는 방역 지침에 따라 1년에 한번 짜는 교육과정을 5-6번씩 바꾸며 다시 짜야 했고, 등교 수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의 소통, 그리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 인가, 이 상황에 맞는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했다. 또한, 감염병에 관한 전문지식은커녕, 기본 지식도 부족한 내가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책임관이 되어야 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 너무 많았다. 무엇이 답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야 했고, 부장교사라는 이유로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의견을 끊임없이 주장해야 했다. 1년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내가 한 결정들이 옳았는가는 사실 모르겠다.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했기에 이 글을 써야겠다 마음 먹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최선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써내려가고 있다.

2020년 3월 2일 사랑하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입학을 치러야 할 1학년 학생들의 등교

가 미뤄졌다. 언제까지 등교 할 수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학교는 휴업 상태로 상황을 보며 기다렸다. 휴업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었다. 바뀌는 상황에 교육과정을 계속 수정해 가면서,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학년 선생님들과 회의하고, 또 그것을 부장회의에 가서 함께 논의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했다. 일괄로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자율로 모든 것이 풀어져 있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눈 앞에 상황들이 닥쳐왔고, 당장 선생님들과 방향을 잡고 준비해야 했기에, 마냥 지침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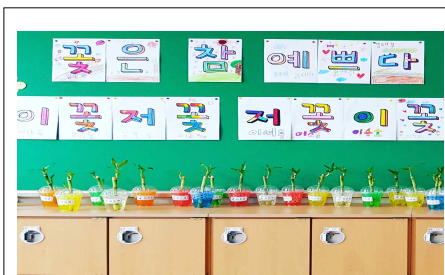
먼저는 학부모와 학생들과 전화로 연락을 취했다. 내가 담임임을 알리고, 어색한 첫인사를 나누었다. 새 가방, 새 준비물들을 챙겨놓고 학교 가는 날을 기다렸을 아이들이, 그래도 첫인사라고 설레하며 내 인사를 받아주었다. 아무래도 얼굴도 모르면 어색할 것 같아 내 얼굴을 보이며 v-log 형식의 영상을 찍었다. 첫 인사를 하는 영상, 교실 찾아 오는 영상, 생활습관 미션 영상, 아이들 주려고 사 놓은 개운죽 심는 영상 등 유튜브에 미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학급소통방에 올렸다. 조금이라도 학교 오는 설렘을 오래 간직하도록 하고 싶었다. 단순히 영상을 올리는 것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교사의 얼굴이 온라인 상에 오픈되었을 때 이것이 일명 ‘맘까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 오용되지 않을까, 또 한 학급만 올리면 다른 학급과 달라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인가. 옆 반 선생님들의 양해도 구하고, 학부모님들께 보안에 대한 안내도 같이 했다.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을 무엇이든 해야 했었다. 학년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학교를 안내하는 영상들도 만들었다. 다른 학년과 달리 1학년은 학교에 처음 와서 적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기에, 학교에 오지 못하는 것은 큰 타격이었기 때문이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3월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아이들과 만나고 싶었다.

어찌되었든 휴업의 기간이 끝나고 학사일정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e-학습터를 전체 활용하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비번을 주고, 학부모님들 연습시키고 다 했더니, EBS로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다. 저학년에게 알맞은 생활습관을 위해서라고 했다. 아쉬웠지만, 좋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당장 EBS로 수업이 몇 시간이 진행될지, 언제까지 해줄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었다. 결국 나머지 계획은 일선의 교사들 몫이었다. 결정할 것이 참 많았다. 각 학교의 상황이 천차만별이기에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주기도 어려웠겠지만, 어디까지 가능할지 알 수 없어, 하나 하나가 협의와 결단의 연속이었다. 예를 들어 EBS에서는 하루에 30분간 한 과목을 수업해주는데, 한 차시를 할 때도 있고, 여러 차시를 30분 안에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EBS를 본 것으로 학생이 1,2,3 교시를 마친 것으로 해야 하는지, 1교시를 한 것만으로 해야 하는지 등.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을 내가, 한 교사가, 결정하고 바꾸어도 되는지가 계속 염려되었다. 하지만, 누군가 결정은 해야 했다. 아무도 결정해 주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교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행히 전국 1학년 교사가 모여있는 온라인 밴드 모임이라던가, 교사들이 학습자료를 공유하는 사이트 등이 있었기에 다른 학교의 상황도 조금씩은 엿볼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방법들이 우리 학교에 딱 맞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EBS 한 번을 한 교시로 하고 나머지 교시는 과제형이나 온라인 탑재형으로하기로 결정했다.

1학년은 입학식 후에 교과서를 나눠준다. 어떻게 나눠주어야 하나? 교실에 들어오게 할 수는 없고.. 기사에서 본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가 생각났다. 어떻게 하는게 안전한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흥내라도 내보자 해서, 총 1번의 드라이브스루와 2번의 워킹스루를 진행했다. 좀 있으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교과서를 일부만 나눠주었다가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하게 된 것이다.

한글 학습을 위한 기초 학습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게 번거롭긴 하지만, 내가 할 순 있지만, 나는 나대로 해야 할 역할이 있었기에 부탁할 사람을 찾기로 했다. 1학년 선생님들 중에 1학년 경험이 있어서 학습 자료를 잘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컴퓨터로 제작하는 능력이 있는 분, 딱 한 명이 있었다. 그 선생님께는 기초학습 책자를 부탁하고, 1년 된 신규선생님께는 학부모님들께 나갈 카드뉴스를 부탁했다. 항상 같은 분에게 일을 맡길 수는 없기에, 꼭 학년 연수를 실시하여 모두 카드뉴스도 만들고, 영상도 편집해 보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초반이 지나서는 각 학급의 카드뉴스를 모두 스스로 만들어 학부모님들께 제공할 수 있었다.

드디어 등교가 결정되었을 때, 등교 방법도 우리들의 결정에 따르게 되었다. 한 학급에 31명이 되는 과밀학급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안전을 위해서는 학급을 반 또는 1/3로 나눠 등교를 하면 좋겠지만, 교육과정과 학생 관리 및 수업 준비 등 어려워지는 점이 너무 많았다. 학년 선생님들께 이야기하고 부장회의까지 거친 결과, 한 학급을 반으로 나누어 등교하기로 했다. 온라인수업 준비, 등교 수업 준비를 함께하며, 나눠 등교하는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나지 않도록 신경쓰면서도, EBS진도에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했다. 이렇게 1학기가 갔다. 2학기 상황은 또 달라졌고, 또 그 상황에 따라 새롭게 결정하며 1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내가 진행한 1년은 전국의 또는, 전세 계의 선생님들에 비하면 정말 새발의 피였다. 저녁에 실시간 화상을 통해 그림책을 읽어주는 선생님, 각 집으로 택배를 보내는 선생님, 날마다 전화로 아이들과 소통한 선생님 등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 방법들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



<사진1> 아이들에게 줄 개운죽



<사진2>카드뉴스표지



<사진3>학급내 분산으로 1/2 등교한 학생들

내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느낀 New normal 시대의 리더십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함께 상의하며 헤쳐나가는 협력의 마음이 핵심이었다.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새로운 문제들을 기존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새로운 문제들이 나온 만큼 새롭고 다양한 방법들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는 하나의 방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새로운 방법들에 눈을 열고, 장점과 단점을 빨리 파악해서 현재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리더가 모든 일에 능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

한다. 다만 다양한 방법들에 눈과 귀를 열고, 또 동료들이 가진 능력들을 잘 숙지하여 우리 팀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학생들을 이끄는 일조차도 매년 똑같이 1년을 진행할 수는 없다. 그 해의 아이들이 함께하면서 나타내는 시너지가 있기때문에, 어느 해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학급경영을 하고, 어느 해는 놀이 활동을 다양하게 하며 에너지를 쓰게 하기도 한다. 이것은 교사가 미리 계획하기도 하지만, 아이들과 맞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고,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고립되기 십상이다. 나에게도 교사들도 동료이고, 학생들도 동료이다. 다만, 학년에서 그 해의 리더역할을 맡은 것이고, 그 학급에서 리더역할을 맡은 것이라도 생각한다. 물론 함께하는 동료에 따라 역할이 천차만별일 수는 있지만 말이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는 차고 넘치게 많고, 전문가가 아니어도, 영상도 만들고, 책을 인쇄 할 수도 있다. 취미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수준이 높아졌다. 개개인의 능력치가 굉장히 높다. 또한 현재의 세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행동을 할 때 가장 성취 동기가 높다. 리더가 무조건 지시를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며 상의하고 충분히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방적인 지시가 되지 않도록 감정적으로 교류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의 동기가 충분 할 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보았다. 나 자신도 그러하고 말이다. 이번 1년은 같이 밥도 먹을 수 없었고, 회식 한 번 할 수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함께 했음에 감사한 1년이었다. 어느 하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이 없이 덜컥거리는 1년이었는 데도 불구하고, 동학년 교사분들도, 학교 다른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 학부모님들까지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에 힘을 주며,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며 잘 따라주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한 것은 거의 없었다. 함께 이야기하고 상의하며 했기에 막막한 이번 해에 방법을 찾아갈 수 있었다.

여성리더십이라는 주제에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남성중심적인(남성리더가 많았던) 수직적인 리더십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글을 써보았다. 여성이라고 해서 수직적인 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에서 말한 방법을 생각하고 수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보낸 1년이 New Normal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은 아니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더 귀 기울이고, 새로운 것에 눈과 귀를 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그리고 최선의 New Normal을 발견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